철강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근무제 실시해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 관리직 유연근무제 도입 시행 중

현장직 근로자는 기존대로 4조 3교대

산업특성 필요… 연장근로 가능케 해야

철강업계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대응책을 모색, 추진하는 가운데 현대제철도 근무체계 전환에 나섰다.

4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관리직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근무체제 전환은 현대제철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변화추진실에서 이끌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4월 그룹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개선 과제 실행을 위한 변화관리 전담조직인 변화추진실(본부급)을 신설한 바 있다.

변화추진실은 근무시간이 단축 시행됨에 따라 고정 근무제와 유연근무제를 병행하는 형태로 근무체계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팀장급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이후 14일까지 각 직원 동의서를 받아 의견을 수렴했다.

변경한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관리직은 고정 근로자는 기존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택 근로자는 필수 근무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오전(7~10시), 오후(16~19시) 출·퇴근을 조정해 근무한다.

현장직 근로자는 기존대로 4조 3교대 방식으로 근무를 이어간다. 3개 조가 8시간씩 일하고 1개 조가 휴무하는 방식이다.

주 52시간 근무 체크 방법으로는 입출입 자진납세를 택했다. 일부 기업처럼 강제 PC 온·오프 대신 자진해서 출·퇴근을 인증하는 것이다. 주 47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에 대응해 관리직의 경우 선택적 유연근무제를 병행하고, 현장직은 기존대로 4조 3교대 방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

제주항공, 장애인 고용 촉진 이끈다

모두락(樂) 2호점 개설 운영 중

제주항공이 지난 5월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 3층에 모두락(樂) 2호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제주항공이 장애인 고용 촉진과 함께 직원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 3층에 모두락(樂) 2호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모두락은 제주항공이 지난해 1월 항공업계에서 처음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사람들이 끼리끼리 다정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 '모두'에 즐거움을 더한다는 '락(樂)'을 붙여 탄생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답게 현재 모두락에는 시각·청각·지적·지체 등 장애인 40여 명이 바리스타, 네일아트사, 마사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75%가 중증장애인이고 전체의 72.5%가 여성장애인이다.

제주항공은 적합 직무 개발 및 맞춤 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중점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2호점을 개설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은 1호점 설립 당시 24명에서 현재 40명으로 늘었다.

특히 2호점 개설은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 3층에 입주해 있는 타사 직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이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는 윈윈 사업모델"이라며 "사업장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重,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한다

국내최대 '8MW급'… 550억원 투입

두산중공업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국책과제로 추진하는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5개 산·학·연이 참여해 약 48개월 간 수행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50억원 규모다.

주관기관인 두산중공업은 8MW급 모델의 설계, 제작, 실증을 총괄하며 ㈜휴먼컴퍼지트가 블레이드 제작, ㈜세일종합기술공사가 하부구조물의 설계와 제작을 맡는다.

또한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 설계 지원 및 시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블레이드 소음 저감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풍력발전시스템은 평균풍속 10m/s에서 8MW 출력이 가능하고 평균풍속 6.5m/s에서도 이용률이 30% 이상인 고효율 제품이다.

70m/s의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도 갖춰 태풍이나 저풍속이 빈번한 국내 환경에 적합하다.

대용량 모델은 설치 및 전력계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전력 산단가(CoE: Cost of Electricity)를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다.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한 30MW급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현대로템, 印 무인전동차 출고일 앞당겨

2량만 내년 1월 출고 예정

현대로템이 지난해 인도에서 수주한 무인전동차 출고일을 예정보다 앞당긴다.

인도 철도 당국의 요청에 따라 초도 편성 2량만 먼저 납품키로 한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해 인도 지하철공사 메가에 1771억원 규모 무인전동차 96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에서는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2019년 4월 초도 편성을 시작으로 2020년 7월까지 모두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인도 철도 당국이 초도 편성분 출고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 2량만 먼저 내년 1월 출고할 예정이다. 최종 납품 기한은 기존대로 오는 2020년까지다.

현대로템이 제작해 납품하게 될 아메다바드 전동차는 3량 1편성으로 운행되며 두 개 편성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운전도 가능해 차량을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운행 최고속도는 시속 80㎞로 승객 정원은 입석을 포함해 편성당 총 782명이다.

전동차는 총 20.7㎞의 인도 구자라트 주의 아메다바드 시내를 동서로 잇는 신규 노선에 투입된다.